

弘報室 : (02)  
6050-3602~5

이 자료는 7/22(月)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- 통신, 인터넷 등은 7/21(日) 11:00부터

※ 문의 : 기업정책팀 강석구 팀장(6050-3461), 백지훈(6050-346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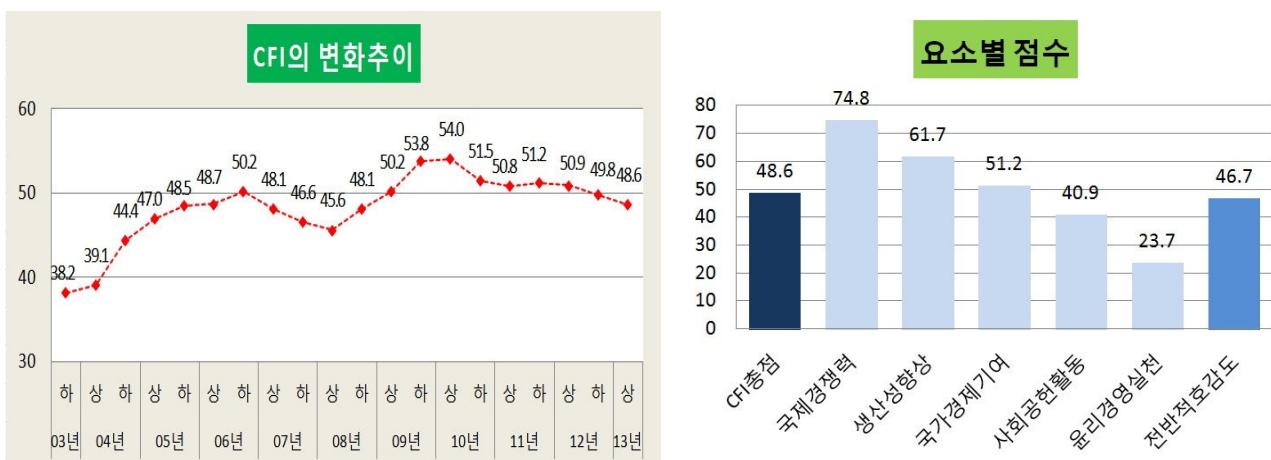
## 기업호감도 '48.6점'(보통=50점)

- 대한상의-현대경제研 '기업호감도' 조사 : 51.2('11하)→50.9('12상)→49.8('12하)→48.6('13상)
- '국제경쟁력'(79.6점→74.8점), '생산성·기술 향상'(63.4점→61.7점) 등 기업 경쟁력 부문 하락폭 커
- 기업에 바라는 점 : '일자리 창출'(43%), '근로자 복지 향상'(22%), '사회적 책임 이행'(17%) 順

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보통(=50점) 수준을 밟돌았다.

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,000여명을 대상으로 '2013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(CFI: Corporate Favorite Index)'를 조사한 결과, 100점 만점에 48.6점에 그쳐 2011년 하반기(51.2점) 이후 3반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.

### <표>기업호감지수 변화 추이 및 요소별 점수



'기업호감지수'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△국가경제 기여 △윤리경영 △생산성 △국제 경쟁력 △사회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 100점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점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.

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 요소별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'전반적 호감도'(48.1점→46.7점) 점수가 낮아진 가운데 '국제경쟁력'(79.6점→74.8점), '생산성·기술향상'(63.4점→61.7점) 등 기업경쟁력과 관련된 부문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. '윤리경영실천'(22.9점→23.7점) 점수는 소폭 상승했고, '국가경제기여'(51.0점→51.2점)와 '사회공헌활동'(40.8점→40.9점) 점수는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.

대한상의는 "세계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기업 호감도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"고 분석했다.

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'국가경제에 기여'(42.2%)를 꼽았고, 이어 '국가 브랜드 향상'(30.5%), '일자리 창출'(22.7%), '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'(4.5%) 등을 차례로 답했다. <'기타' 0.1%>

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은 이유로 국민들은 '윤리적 경영자세 부족'(50.9%)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, 이어 '사회적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'(22.5%), '기업간의 상생협력 부족'(18.3%), '고용창출 노력 부족'(7.8%)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. <'기타' 0.5%>

한편, 국내 반기업정서가 높은 편인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은 응답자들이 '그렇다'(66.5%)고 답했지만, <'아니다' 33.5%> 경제에 가장 공헌을 하는 주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4명중 3명(74.7%)이 '그렇다'고 답했다. <'아니다' 25.3%>

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해서는 '예년보다 높아졌다'(36.4%)는 응답이 '낮아졌다'(21.7%)는 응답을 앞질렀고, <'비슷하다' 41.9%>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'노사안정'(41.1%), '정책 불확실성 제거'(20.4%), '창업지원 강화'(15.9%), '규제 완화'(13.9%)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 <'반기업 정서 해소' 8.7%>

기업에 바라는 우선 과제로는 '일자리 창출'(43.1%)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, 이어 '근로자 복지 향상'(21.6%), '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'(16.9%), '국가 경쟁력 강화'(12.6%), '이윤 창출을 통한 국부 증진'(5.8%)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.

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“지난 몇 년간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”이라며, “최근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아울러 “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,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 

#### < 조사 개요 >

- 조사 기간 : 2013년 6월 17일~2013년 6월 24일
- 조사 방법 : 전화조사
- 조사 대상 :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011명

#### 기업호감지수 (CFI: Corporate Favorite Index)란?

기업호감지수 (CFI: Corporate Favorite Index)는 국민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서,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, 기업 활동, 기업인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다.

본 조사에서 기업호감지수는 ‘5대 요소’ 와 ‘전반적 호감도’ 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했다. 5대 요소는 ① 국제 경쟁력 ② 생산성 향상 ③ 국가경제 기여도 ④ 사회 공헌 활동 ⑤ 윤리경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요소에 대해 응답자가 긍정적이면 100점, 반반이면 50점, 부정적이면 0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를 냈다.

‘전반적 호감도’ 는 응답자가 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‘호감이 간다’ 는 100점, ‘반반이다’ 50점, ‘호감가지 않는다’ 는 0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를 냈다.

이렇게 계산된 ‘5대 요소’ 와 ‘전반적 호감도’ 를 각각 50%씩 반영하여 점수를 낸 것이 기업호감지수 (CFI)이다. 기업호감지수가 100점인 경우는 완전히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반대로 0점인 경우는 기업에 대한 호감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.